

# ASSOCIATION NEWS

## 한·베트남 주택업계교류협력회의 개최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베트남부동산협회 대표단을 초청해 한·베트남 주택 관련 협력 사업 및 교류 증진을 위한 '한·베트남 주택업계대표단회의'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9일, 베트남부동산협회와 체결한 양해 각서에 따라 한·베트남 간 주택 관련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협력 사업으로 한국 측에서는 신훈 회장을 단장으로 대원 전영우 사장, 금호산업 이연구 사장, 벽산건설 김인상 사장, 신동아건설 이인찬 사장 등 주택업계 대표 21명이, 베트남 측에서는 통 반 응아(Tong Van Nga)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44명이 참석해 한·베트남 간 주택 및 부동산 분야 등에 관한 정보 교환과 상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교환했다.

10월 9일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한·베트남 주택업계대표단회의'에서 한국 측은 '성공적인 베트남 부동산 협력 사업 방안과 사례(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에 대해, 베트남 측에서는 '베트남 사회 속의 주택'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베트남 주택업계대표단회의'는 국내 주택 분양 시장의 어려운 여건으로 업계의 주택 사업 위축을 고려해 해외 주택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에는 한

국 주택 업계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부동산 개발 및 영업 실무자를 중심으로 시찰단을 구성해 베트남 부동산 업계와 협력 사업 및 교류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 위원장(한화건설 전무)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공급 활성화와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내용으로 한 9·19 부동산 대책과 중부세 과세 기준 상향화를 골자로 한 9·23 대책, 현행 지방세의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는 지방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토록 하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홍보위원들은 최근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가 더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 추진키로 했다.

